

## OD3                    한국의 전통마을에서 본 공간구성과 환경설계 원칙

신상섭\*, 강인애<sup>1</sup>

우석대학교 이공대학 조경학전공, <sup>1</sup>우석대학교 대학원

### 1. 서    론

동네 즉, 마을은 한자어로 촌락(村落), 부락(部落), 취락(聚落)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외부로부터는 은폐되고 자연을타리인 골(곡)을 테두리로 설정하여 공동체 생활을 경영하는 행정적 단위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간 생명의 모태로 선인들의 지혜와 숨결이 스며있는 마을은 자족적 생활권인 동시에 동질적 조직체가 되며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같은 물리적 범위가 포함되며, 역사성을 가지고 면면히 이어져 왔는데, 지역, 시대 또는 집단에서 형태나 재료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기능적 표현 또는 풍토, 토속, 지역적 양식을 의미하는 향토경관(vernacular landscape)으로 지역의 전통, 문화적 양식이 어우러진 경관으로 인지된다.

환경심리와 관련하여 마을은 아늑하고 포근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데, 뒤로 산이 있어 좌우로 감싸는 형상이 되며, 앞으로는 물길을 마주하여 산과 물에 의해 한정된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살기 좋은 마을은 앞에 너른 들과 평온하게 보이는 안산(案山)이 있고 맑은 개울이 흐르며 산을 등지고 마을길이 뻗어있는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이 되며 풍수지리(風水地理)에서는 이를 장풍국(藏風局), 득수국(得水局) 형국이라 일컫는데, 마을자리와 관련하여 복거(卜居), 상택(相宅), 점기(占基) 원칙하에 양명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복거지(福居地), 살면서 좋은 영향을 받는 자리)를 찾으며, 특유의 풍토와 자연정취를 이용하였다. 즉, 종교와 사상이 실체화되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상징 code : 天=陽=○, 地=陰=□, 人=中庸=△)이 조우하며 균형을 이루어 아름다운 생태적 문화예술공간임이 감지된다.

### 2. 본    론

전통마을은 일반적으로 산기슭의 경사면 양지바른 곳에 남향하여 자리를 잡으면서 배산임수의 공간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마을은 자연지세를 고려하여 주거지 조성 및 경작물 재배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복거관에 따라 샅터를 잡고 이웃과 공동생활을 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소 우주관에 따라 생활영역을 형성하는 테두리를 만들고 여유가 있으면 반나절 되는 거리에 자연과 벗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학문을 연마하는 장소를 경영하기도 하였다. 또 이웃과 통혼권을 유지하거나 자식들에게 분재(分財)라는 형식으로 토지를 확보해감에 따라 영역을 넓혀갔다. 이러한 자연의 이용 내지는 공간에 대한 의식 표출이 주거문화로서 전해오고 있다.(최기수, 1998)

마을은 영역을 배후지, 주거지, 경작지로 설정하여 축과 위계에 따른 향천적(向天的) 흐름이 반영되고, 속(俗)에서 성(聖)으로 전이되는 상징성을 표출하면서 전개된다. 이때

배후지는 마을 후면의 산이 되는데, 방풍림과 풍치림의 역할은 물론 조상의 묘자리와 토속신앙 영역이 되며 생활재료와 땀감의 제공, 수원을 공급받는 실용공간으로 이용된다. 주거지는 시각적으로 답답하지 않은 환경사지에 자리하여 여름에는 시원한 남동풍을 받아들이고 겨울에는 차가운 북풍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집들과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함과 동시에 절대 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지세와 시계를 고려한 좌향이 결정되어 양호한 일조환경 조건을 만들면서 안전성이 보장된 양명한 공간이 된다. 주거지 전면에 펼쳐지는 경작지는 하천을 끼고 문전답과 바깥들로 구분되는데, 문전답에는 부식용 작물이 재배되며 바깥들에는 풍부한 수량과 너른 면적을 가지게 되어 수용성 작물인 벼가 주로 재배된다.

마을길은 살림집들의 연결망이 되며 물길과 깊은 관계를 갖는데 지형이 갖는 완만한 상승감과 위계에 따라 바깥길, 어귀길, 안길, 셋길 등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커다란 나뭇가지를 연상하게 된다. 큰길인 바깥길은 외부로부터 마을영역을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어귀길은 마을어귀까지 이르는 지맥을 따라 진입하는 분절 영역이 되고, 안길은 마을을 관류하는데 정자나 쉼터, 마을마당 등이 설정되는 매개공간이 되기도 한다. 위계가 낮은 셋길은 우물이나 빨래터, 공동작업장 등을 끼고 있는데 급격한 단절을 피하면서 부드러운 전이공간이 되어 단위 살림집의 연결고리 역할을 겸하게 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전통마을로 지정된 곳은 강원 고성외의 왕곡마을, 충남 아산의

표 1. 전통마을의 역사문화 환경 및 경관적 가치

구분	아산 외암마을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순천 낙안읍성
문화재 현황	중요민속자료 195호 중요민속자료 236호	중요민속자료 122호 보물, 도유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189호 보물, 도유형문화재	사적 302호, 중요민속자료
역사 문화 환경 가치	*풍수적 배산임수형 길처에 자리한 충청도 반가풍의 대표적 마을 *마을숲(松林)과 비보림(버드나무), 당산목인 느티나무(보호수)제, 솟대, 장승제 전승 *풍수의 수기를 교묘히 활용하여 살림집을 관류하는 곡수로와 연못 등의 수경요소 *살림집들이 고풍스럽게 어우러지고 정감어린 돌각담의 연속경관 *1900년대 초 변환기적 정원조성과 조경법	*풍산류씨 동성마을로풍수적 태극형, 연화부수형 길처(화천, 화산, 남산, 부용대 등) *줄불놀이, 별신굿(국보) 등 민속놀이와 삼신당(느티나무) 등 당제와 관련된 민간신앙 전승 *서원, 누정, 별서, 살림집, 마을숲(만송정 송림) 등 다양한 문화경관 요소와 유교적 생활문화 체험공간 요소 *화천, 남산, 부용대와 같이 경관이 뛰어난 하회 16경 경영	*월성손씨와 여강이씨가 경영한 마을로 하회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영남의 전통마을 *자연 구룡을 잘 활용하여 마을영역을 확장시킨 환경공간 조성 *풍수지리상 물(勿)자형 길지(설창산, 성주봉, 안락천 등) *줄당기기, 서래술놀이와 호미씻기 등 민속놀이 문화요소 전승 *대·소종가와 누정, 서당, 노거수(당목) 등 문화경관 요소	*현존하는 대표적 읍성마을로 풍수적 옥녀산발형, 행주형 길지 *자연을 닮은 살림집(초가)들로 구성된 서민 중심의 민촌 *T자형 가로망에 읍성, 객사, 비각, 해자, 석구, 노거수 등 존재 *비보숲과 경관이 아름다운 낙안 8경 경영, 음식관련 8진미 전승 *큰줄다리기, 사명·덕석기 뺏기놀이, 12마당농악놀이(12진법 굿) 등 민속놀이 전승

의암마을,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 전남 순천의 낙안읍성, 제주의 성읍 마을 등이 있는데, 몇몇 사례를 환경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전통마을의 환경설계와 공간구성요소

구 분	공 간 구 성 요 소
자리잡기 (환경설계)	뒷산(背山)이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물길이 마을 앞을 감싸며 마을 안쪽이 넓어진 공간국면, 주거지와 경작지 그리고 배후지를 포함하여 지리와 생리, 인심과 산수를 두루 갖춘 곳,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안온한 터
영역성과 조영물	마을의 영역을 알리는 구분요소로 신앙의례시설(장승과 솟대, 당(堂)과 당목(堂木), 효자·열녀비, 선정비, 사당과 묘자리 등), 교육시설(서원, 서당), 휴식시설(정자, 정자목, 마을숲, 연못 등), 생활시설(살림집, 대·소종가, 우물, 빨래터, 마을마당과 타작마당, 마을길, 문전담 등) 등
마을길	어귀길(고갯길), 동구(마을입구 : 정자목, 장승, 성황당, 효자·열녀비), 갈림길과 안길(마을마당, 우물, 빨래터), 골목길(막다른길), 셋길(오솔길)
생 태	배산임수(背山臨水),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지형, 생태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살림집의 남향배치 등 자연에너지의 활용, 미기후의 고려(연못, 저수지, 실개천과 수로), 마을숲(방풍림, 비보숲, 당산목), 자연재료의 이용(흙, 돌, 나무)과 투수성 포장 등
경 관	마을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개방적인 경관과 외부에서는 폐쇄된 경관, 종가와 정자 등 경관관찰점 조성, 자연이 둘러싸고 마을이 그 속에 접속되어 환경심리적으로 안정된 조망권 형성, 8경과 같은 승경지의 경영, 민간신앙, 놀이, 풍속과 관련한 문화경관

표 3. 전통마을의 유형별 환경설계 원칙과 기법

구 분	환경설계 원칙과 기법
설계목표	우주의 질서체계와 天地人의 합일적 地母思想이 반영된 福居地 생태적 평형원리를 존중하는 유기체론적 사고가 반영된 卜居地 (음+양, 山+水+方位+사람 =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삶터)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범신론적 자연관, 토지관, 생명영속사상의 반영
설계기법	주거지, 경작지, 배후지를 통합하는 적지선정과 광역 환경공간설계 마을 구성원 주도형 설계 및 토지수용력의 반영과 장단기적 공간 경영 생태적 주거환경 조성의 인간적 척도(human scale) 공간의 설정
입 지	주산과 조산으로 이어지는 축선상의 안온한 분지형, 완경사지 삶터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친화적 卜居地 藏風得水 + 背山臨水, 안전성이 보장된 전착후관의 양명한 삶터
토지이용과 동선	주거지+경작지+배후지 그리고 마을길과 물길이 통합된 공간경영 대소종가, 소작농, 민가 등 주종침의 위계가 반영된 서열적 토지이용 수용력이 반영된 동선체계와 보행자 중심의 곡선형 마을길
주거형태	자연지형과 물길 등 을 고려한 에너지 보존형 마을과 주택 상류, 중류, 서민주택으로 구성된 기와집과 초가집의 위계적 구성 주변 자연환경조건에 순응하고, 조화되는 다양한 주거향과 주거형태

표 3. 전통마을의 유형별 환경설계 원칙과 기법(계속)

생 태	자연환경 녹지축에 삶터가 접속된 생태환경 네트워크의 구축 생물서식공간, 생태통로 등의 조성, 水石木 등 자연 향토소재의 사용 자연에너지의 활용, 미기후의 고려, 자원 재활용 등 환경생태마을 구축
영역성	살림집, 신앙의례시설, 강학공간, 교육문화시설, 생활편익시설영역 어귀길, 동구, 갈림길과 안길, 셋길과 골목길로 구성된 마을길 영역 동과 정으로 교직된 역동공간의 연속적인 기승전결(시작과 맺음) 체계 영역표시지표물(장승, 솟대, 신당, 마을숲, 우물, 빨래터, 방아, 종가 등)
교육생활문화	생성(살림집)-풍요(누정, 서당)-초월(별서)-회귀(서원)의 상류주거문화 강학시설(서원, 서당)과 풍류 및 생활문화 편익시설의 경영 마을축제(민속놀이-무형문화재), 민간신앙제례문화(당제, 기우제) 전승
경 관	진경관(자연)+상징경관(신앙의례공간)+ 인조경관(살림집)의 접합 환경심리적으로 안정된 조망권(안대)과 누정 등의 경관관찰점 경영 마을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개방적 경관과 외부에서는 폐쇄된 경관 지표경관요소의 도입 그리고 8경, 16경 등 승경지의 광역경관 관리
공동체	동구, 장승과 솟대, 신당, 마을숲 등으로 감지되는 마을공동체 마을대동계, 마을 장터, 두레공동체, 향약 등 공동체 삶의 프로그램 토지수용력이 반영된 자족적 공동체 규모 설정

### 3. 결 론

우리의 선인들은 산수진경한 길처에 생활문화를 자연스럽게 접속시켜 삶터 즉, 마을을 경영하였는데, 자연에 대한 절제감 그리고 생태계의 질서와 환경자원을 중시하는 가치관(생태적 건강성)이 작용된 생태자원관리형 환경설계 원칙(인간번영people prosperity적 사고를 뛰어넘는 장소번영place prosperity적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을 자리는 배산임수+장풍득수하는 길처에 진산과 같은 상징장소를 연결하는 축선상에 설정되는데, 민간신앙과 종교 그리고 사회제도와 생활을 담는 조영체(살림집, 누정, 별서, 서당 등)의 지혜로운 교직을 통하여 문화경관상을 완성하는 정주환경 조성의 틀을 보여준다. 즉, 자연이라는 진경(眞景, 容)속에 유·무형의 상징경관(堂, 마을숲 같은 聖域 그리고 민속놀이)과 인조경관(살림집 등의 조영체, 俗, 體)이 접속되는 종합 예술문화경관(相)이 된다.

자연지세와 마을길에 의해 남촌과 북촌 또는 윗마을과 아랫마을 등으로 분절되는 공간구조는 안전성이 보장된 양명한 공간이 되는데, 위계성을 반영하여 종가가 중심가옥으로 자리하고 마을길 또한 중심공간을 향하여 연속적으로 심리적 긴장-완충-이완-안도감을 부여하여 음악적 리듬감이 내재된 울동미를 맛보게 한다.

생활공간과 풍류공간 즉, 차(此 : 살림집)와 피(彼 : 별서와 누정 또는 서당과 서원)의 공간은 실존과 이상향이 결합된 구도인데, 토지수용력 범위에서 영역을 확장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복거(福居)공간을 창출하게 된다. 이때 향촌의 기반을 확립시킨 인물들이 살림집에서 태어나 서원에 배향되는 과정에서 살림집, 별서와 누정,

서당과 서원 등이 경영되는바, 시계열적으로 기(起, 생성)·승(承, 풍요)·전(轉, 초월)·결(結, 회귀)의 유기체적 문화공간이 된다. 여기에는 마을과 단위살림집의 규모 그리고 강학처, 별서와 누정 등의 위치선정, 마을길(안길과 샛길)의 설정, 보행거리와 심리가 반영된 편의시설의 도입 등 인간적 척도(human scale)를 헤아릴 수 있는 크기와 내용을 담고있어 공간 자체는 압박감을 주지 않으며, 평화롭고 안정감을 주는 친환경공간이 된다.

전통마을은 경관가치적 측면에서 자연환경과 풍토에 부합되는 환경생태경관으로, 살림집과 마을길 풍경과 토속신앙 제례처 등 장소성과 상징성을 다양하게 표출하면서 특징적인 향토지표경관상을 연출하는데, 경관 체험에는 내부에서 볼 때 자연의 풍광을 빌려 향유하는 차경법(멀거나 가까운 풍광 그리고 높거나 낮게 전개되는 경관을 정원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수법)을 활용하면서 개방적인 가시성을 연출하지만 외부에서는 마을이 폐쇄되어 비가시성을 갖는 양면성을 표출하는 등 조망의 거점(landscape control point)으로 작용된다.

살림집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내원(內苑)과 정원(內園) 그리고 가시적 자연경관인 외원(外苑)과 바깥뜰(外園)을 경영하였는데, 미적 쾌감을 유발하는 수경연출기법, 마을숲과



그림 1. 설화산을 배산하여 풍수의 수기(水氣)를 교묘히 활용한 외암마을 전경



그림 2. 풍수적 명국터로 회자되는 산태극·수태극의 물돌이동 하회마을과 화천, 부용대 전경

누정의 경영, 살림집 사랑뜰과 후원에 화오(花塢)나 화계를 두는 경관형성효과 등 곳곳에서 한 폭의 아름다운 정물 경관을 만나게 된다. 특히, 지표경관(landmark)이 되는 堂木과 정자목 그리고 마을을 관류하는 수로와 연못 등 水木石의 적절한 도입은 실용적 가치기준에 신앙관과 자연관, 상징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등 인체의 5감(보고 느끼는 작용을 만족시키는 탐미관)을 자극하면서 공간에 활력을 주고 계절미를 통한 감흥을 유발시키는 열락형 정원(pleasure garden)이 되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경관 + 생태마을이 된다.



그림 3. 勿子형 명국터로 회자되는 양동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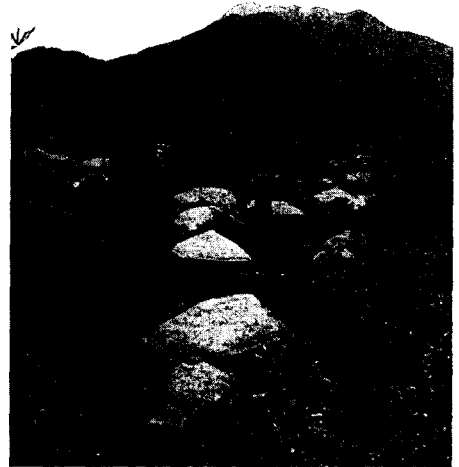


그림 4. 어머니 품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낙안읍성

#### 4. 요약

우리의 선인들은 자연환경과 풍토조건을 고려하여 '인간과 자연의 합일'이라는 안정된 생활환경공간을 조성하였는바 복거관에 따라 주거지를 조성하고 경작물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며 이웃과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삶터를 경영하였으며, 우주관에 따라 생활영역을 구축하여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정신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는 형이상학적 관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즉, 전통마을의 경영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天+地+人, 음+양, 山+水+方位+사람)이 조우하여 균형을 이루고 합일되는 생명영속사상의 준거들을 운용하여 물질적 풍요는 물론 정신적 풍요를 중시하는 환경설계 철학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마을의 조영체들을 자연환경 속으로 깊숙이 관입시켜 생태환경에 대한 질서와 평형원리를 존중하는 유기체론적 설계목표를 반영하였다. 안정된 생활환경공간으로서 생태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환경설계 기법은 입지, 토지이용과 동선, 주거형태, 생태, 영역성, 교육생활문화, 경관, 공동체 구성과 관련된 원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강거배, 절제의 공간, 한국정원학회지, 1988
- 강선중, 마을의 구성, Plus 9002 149호, 1990
- 경상북도,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1979
- 김봉렬, 한국건축의 재발견 1, 2, (주)이상건축, 1999
- 김영덕, 서애 유성룡선생의 정자기와 시에서 살핀 옛뜰, 한국정원학회지, 1988
- 김용직, 안동하회마을, 열화당, 1986
- 김한배, 한국전통마을과 읍성의 경관성, 도서출판 조경, 1992
- 박광재 외2, 한국전통주거의 계획개념을 응용한 공간구성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2002
- 서유구, 임원경제지, 1842 -1845
- 신상섭, 전통마을의 공간구성과 환경설계, 국토연구원 국토 1999, 9, 10월호
- 신영훈, 안동하회마을, 조선일보사, 1999
- 이몽일, 한국풍수사상사, 명보문화사, 1991
- 이재준, 주민참여를 통한 생태마을 조성방안, 대한주택공사, 2001
- 이중환, 택리지, 이익성 역, 을류문화사, 1971
- 정재훈, 민가조원, 환경과 조경, 9111, 9207, 9210
- 천득염·전봉희, 한국의 건축문화재(전남), 기문당, 2002
- 최기수, 층계 권별의 유곡마을 조영에 관한 연구, 조경학회 심포지움집, 1998
- 홍만선, 산림경제, 1643-1715
- A. M. Calcagno, Conservation of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한국정원학회지 34호, 2000
- A.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1969
- [www.anu.andong.ac.kr](http://www.anu.andong.ac.kr), [www.yangdongsarang.com](http://www.yangdongsarang.com), [www.nagan.or.kr](http://www.nagan.or.kr)
- [www.parandeul.co.kr](http://www.parandeul.co.kr), [www.piago.com](http://www.piago.com)